

불평등 정년강요 맞선 이인영씨

29일 노총이 주최한 전국여성노동자대회에서 '올해의 여성' 대상을 받은 이인영(53·우림산업사 노조위원장)씨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무시한 채 단체협약을 들어 여성에게만 53살 정년을 강요하는 회사쪽의 부당행위에 맞서 3개월째 권익수호싸움을 벌여 수백만명의 일하는 여성들에게 '빛'이 되고 있다.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Mrs. M. K. Kato, a woman with short, dark, curly hair, wearing a dark dress with a white lace collar. She is looking slightly to the right of the camera.

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출근투쟁을 벌이는 한편 지난 4월 경기도지방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내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임금도 박하고 근로조건도 열악한 영세 스웨터 가공업체이지만 16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는데 지난 2월 만 53살이 되는 날 아침에 ‘그만 나오라’는 회사 쪽의 일방적 전화통보를 받으니까 그렇게 억울하고 허탈할 수가 없더군요.”

75년 두 딸을 키우는 38살의 주부로 우림산업사의 전신인 해양섬유(주)에 가공부 사원으로 입사한 이씨는 이듬해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직부장(79년), 부위원장(82년)을 거쳐 85년부터 6년째 노조위원장을 맡아왔다.

전체 사원 75명 가운데 9명의 남성을 빼고 나머지 대부분이 기혼여성인 이 회사는 성남에

있는 스웨터 수출전문업체로, 생산직 노동자는 평균 근속연수가 10년을 넘지만 대부분 일당이 최저임금인 6천5백60원(상여금 3백%), 한달 평균 17만~18만원에 불과할 만큼 영세하다.

전임 위원장도 부당해고당해
중앙노동위의 승소판결로 어렵
사리 복직되기도 했다.

지난 5월 중순에는 위원장의 출근을 막는 회사쪽과 노조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이씨가 다친 데 항의해 하루 잔업을 거부하자 회사쪽은 이씨 등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평생직장으로 여기고 어용소리를 들을 만큼 회사를 위해 일해왔는데 이런 큰 상을 받으니 노조원들에게 미안할 뿐”이라는 이씨는 “반드시 승소해 두 딸과 동료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김경애 기자〉